

새롭게 부상하는 '아랍현대문학'

서구문학의 충격 슬기롭게 흡수...국내 소개 미비

趙熙善

조선대 교수·아랍어과

최근 들어서 몇몇 잡지가 제3세계문학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으나, 우리의 제3세계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무관심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랍문학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와 닿는다. 심지어 이번 노벨문학상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 정작 상을 탄 이집트 작가 나집 마흐푸즈는 제3세계의 한 작가로만 언급되기도 했었다.

서구문학에 큰 영향 미친 「천일야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천일야화」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를 통해 일부나마 아랍문학을 접해왔다고 하겠다. 이야기 전부는 아니더라도, 「천일야화」에서 발췌해 동화로 엮은 「신드바드의 여행」, 「알라딘의 요술램프」와 「아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등을 어린 시절에 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고대 아랍문학이 시를 중심으로 한 귀족 문학이었던 반면, 「천일야화」는 인도의 이야기가 페르시아를 거쳐 아랍에서 집대성되어 아랍화된, 인류문학에 속한다. 그 당시 귀족문학을 접할 수 없었던 서민들의 애환과 꿈,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던 서민구전문학이 바로 「천일야화」인 것이다.

이러한 「천일야화」는 그후 세계 각국어로 번역·소개됨으로써 세계문학의 창작과 상상력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문학의 테두리를 넘어 예술 전반, 즉 미술, 음악, 오페라, 연극, 영화 등에도 그 일부 이야기 혹은 인물 등의 발췌를 통해 도입되었다.

한편, 코란에 대한 절대성 부여와 더불어 코란 그 자체가 종교 뿐만 아니라 아랍문학의 최고봉이라 여겨지면서, 종교적·도덕적 경직성이 문학 창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류문학으로 간주되어온 「천일야화」 속에 음담패설이 담겨 있다는 도덕적 이유로, 1984년 카이로에서 이 책을 불살라버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한 이 책에 대한 연구가 서구에서는 그 번역과 활용이 활발한 반면, 아랍국가에서는 중전의 학자들에 의해 이 책의 가치가 경멸시되어 온 것을 보더라도, 종교가 아랍문학의 발전에 장애가 된 것이 사실이다.

18세기말 이래로 유럽세계의 아랍세계에 대한 침략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이집트 작가 마흐푸즈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아랍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일야화」와 「코란」이라는

빛나는 전통을 지닌 아랍문학은

서구 열강의 침입 이후 한때

「변두리 문학」으로 전락하기도 했지만

제3세계의 민족의식 고취와 함께

새로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영역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아랍문학에 일찌기 존재하지 않았던 유럽에서 태동한 문학장르인 소설·희곡 등의 새로운 문학형태가 아랍문학에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현대아랍문학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동과 서, 고전과 현대가 같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까지의 현대 아랍문학은 특히 소설에 있어 아랍의 고전형태와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학형태를 접목시키려는 시도에 많은 노력이 가해졌다. 이에 대부분의 아랍소설은 전통적 아랍사회가 새로운 서구사회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동·서, 즉 옛것과 새것의 충돌에 대한 위기와 갈등을 표현하는 이중적 내용을 담고 있었고, 형태적으로는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한 이전의 서민문학에서 대표되는 우연적 이야기 서술과 더불어, 현대소설의 필연적 서술방식을 혼합한 이중적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아랍현대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과 형태의 이중성은 작가가 표출하고자 하는 위기·갈등의식을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희곡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이단시하여 그림조차도 금지되었던 무슬림 아랍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서구의 침공과 함께 들어온, 아랍국가 특히 레바논·시리아·이집트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극단의 공연은 아랍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충격은 곧 모방을 가져왔고, 외국의 희곡을 아랍어로 번역, 소개하는 단계와, 외국 희곡의 아랍화 단계를 거쳐 불란서에서 희곡을 공부한 이집트 작가 타우픽 알하킴에 의

해 아랍희곡은 서구의 희곡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한편, 19세기말 이래로 대두하기 시작한 서구열강들의 아랍세계 분열조장으로 인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아랍어로 강하게 유대감을 간직했던 아랍세계는 민족주의라는 명제 하에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전의 아라비아 반도의 부족국가에서 팽창하기 시작한 아랍 이슬람세계는 많은 다른 인종과 종교를 포용한 사실상의 범세계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의 주창으로 인해, 몇몇 부류의 사상가·문학가들은 이집트인이 아랍인이기보다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이미 나일강변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파라오의 자손으로 남아 있길 원했고, 이슬람왕조의 우마위야조시대에 아랍화된 튀니지아는 로마와 썩음을 이루었던 카르타고의 후예이길 주장했으며, 알제리아와 마그립은 불란서인들에 의한 아랍인 분열정책으로 아랍화 이전에 그곳에 거주했던 베르베르인의 문화·예술·언어 등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러한 각 아랍국가의 대의의 차이점 이외에도, 아랍의 모든 국가들이 코란의 언어인 표준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실용어가 아닌 표준어는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있어 각 인물들의 언어가 실제의 언어가 아닌 표준어로 일치됨에 따라서 현대 소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의 자기표출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랍문학자들 사이에 문학논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표준어만을 사용하자는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각국 고유의 방언으로 작품을 써야 한다는 작가들, 또 이 두 그룹의 중용으로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히 사용하자는 작가들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또한 어떤 작가들은 방언을 유사표준어로 고쳐서 작품을 쓰기도 했다.

지브란, 카나화니, 마흐푸즈 등 소개돼

이와같이,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고 문학의 표현 수단인 공통의 언어를 지녔을지라도 각 나라의 대의, 방언 등으로 인해, 21개국으로 갈려 있는 아랍국가의 문학을 '아랍문학'이라고 통틀어 말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아랍문학을 몇개의 지역권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품활동이 활발한 이집트문학을 들 수 있고, 그 다

음으로 평범한 수준이긴 하지만 나라를 잃어 버린 상황 속에서 태동된 팔레스타인문학이 있다. 비록 주제의 지엽성과 문학적 기술면에서 뒤떨어질지 모르나 '시대문학'으로 크게 부상되어 있다. 또한 모로코·알제리아·튀니지의 마그립권 문학과, 미국이나 라틴아메리카로 이주한 아랍작가들에 의해 형성된 '이주문학' 등으로 아랍문학을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아랍 각국의 특성과, 아랍어를 전공하더라도 부딪치는 각국의 방언이 작품 속에 사용됨에 따라 우리의 아랍학문의 짧은 역사와 더불어 아랍문학이 거의 국내에 소개되지 못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된 작품은 레바논계 미국이주작가 칼릴 지브란이 영어로 발표한 「예언자」, 「영혼의 거울」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으며, 팔레스타인의 대표적 작가 갓싼 카나화니의 「하이파에 돌아와서」(이호철·임현영 옮김, 태상문화사), 「태양 속의 사람들」(민영·김종철 옮김, 창작과 비평사)이 영어 중역으로 번역·소개되었다. 「팔레스타인민족시집」(박태순 옮김, 실천문학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최초로 아랍어에서 직접 번역된 작품은 1986년 소개된 나집 마흐푸즈의 「도적과 개들」(송경숙 옮김, 지학사)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아랍문학의 국내 소개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이번 노벨상을 계기로 계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비단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나집 마흐푸즈의 작품 뿐 아니라, 70년대 초반에 노벨상 후보에까지 이른 적이 있는 타하 후세인을 비롯한 많은 우수한 작가들의 작품 소개가 기대된다.

비록 현대 아랍문학이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으나 아랍문학은 이미 「천일야화」를 통해 서구의 현대문학 부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그후 서구에서 잘 다듬어져 아랍세계로 도입된 현대문학창작가 아랍문학에서 다시 꽃을 피운 것이다. 따라서 이번 아랍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단순히 제3세계에 대한 정치적 배려가 아닌, 당연한 귀결이라 여겨진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우리와 더욱 친숙해질 아랍문학을 포함한 제3세계의 문학에 대한 관심이 서구일변도의 편향성에서 벗어나, 우리 한국 독자와 한국 문학에 또다른 지평선을 열어줄 것을 기대해 본다.